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한국의 선택

곽 승 영

(美 하워드 대 경제학 교수, sungkwack@yahoo.com)

1. 머리말

우리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역사 발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국지적인 분야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전개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모든 과정들로부터 목격되는 전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도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가 어떠한 사회이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연에서는 글로벌화가 과연 한국과 한국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함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글로벌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때문에 다른 경제학 주제보다도 글로벌화에 대한 토론이 상당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횟수뿐만 아니라 그 토론의 주제 역시 논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강연 역시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자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해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연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화의 의미와 원

인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화가 노동과 자본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은 유지한 채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 소득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육개혁과 개인적 대응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본 강연을 맺을까 합니다.

2. 글로벌화

그럼 먼저 글로벌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에서 논의하는 글로벌화는 글로벌화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경제적 글로벌화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등에서 국제적 통합이 점점 밀접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글로벌화는 무엇보다도 기술혁명에 의해 고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혁명뿐만 아니라 교통, 마케팅, management, 로봇 분야에서 전개된 기술혁명들에 의해 경제적 글로벌화는 고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혁명들이 통신 및 운송 비용을 하락시켜 경제적 글로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감소 등 무역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점점 사라져 감에 따라 글로벌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무역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데 따르는 장벽들은 극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자본은 초국적 자본으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글로벌화의 태동은 기술혁명으로 인한 통신 및 운송 비

용의 감소와 세계 각국이 실행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장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글로벌화는 문화적 글로벌화의 출현을 돕게 됩니다.

글로벌화된 환경 속에서 각 국가들은 각각 나름의 형태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각각의 국민경제들은 다시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을 통해 서로 연계됩니다. 이러한 국민경제 간의 연계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이윤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생산과정과 조직 개편을 촉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오늘날 자동차 생산 과정의 경우, 각각 다른 나라에서 개별 부품이 제조되고, 이렇게 제조된 개별 부품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최종 조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은 중앙 컴퓨터 터미널에 의해 제어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국제무역은 점차 중간재 투입과 부품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화라는 용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용어와 글로벌화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 경제활동의 범위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지리적 연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을 분산하고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은 다른 나라지만 동일하게 취급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 언어만 바꿔 동일한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노동과 자본의 소득, 소득 분배

글로벌화된 환경 속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기업, 국가는 과거에 비해 보다 치열해진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은 점차 자국에서의 정착물로 취급되기보다는 하청 계약된 부품과 같이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값싼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아웃소싱 형태로 제품

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화는 노동소득 대비 자본 소득의 증가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되어 왔던 과정이 이제는 소수의 숙련 노동자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과 자본은 보완적 관계가 있는 기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다 덜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역시 컴퓨터 지원 생산 과정이 반복적인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들은, 숙련 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점점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 증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화와 기술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간접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고품질의 재화를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을 높여 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글로벌화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글로벌화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글로벌화는 경쟁의 격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구조의 극단적인 다운 사이징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글로벌화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조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화는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범세계적 범위에서 실업과 빈곤을 야기시킨 사회악 내지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제행위를 할 때에도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글로벌화 역시 이익과 비용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글로벌화는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미숙련 노동자들과 심지어 숙련 노동자조차도 글로벌화를 그들의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글로벌화를 찬성하는 데 비하여 일반 여론에서는 글로벌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글로벌화를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부들이 글로벌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보다 강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한국의 사례

1960년대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통화요금은 분당 3.5달러였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 값은 1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1960년대에는 1분 전화통화비용이 커피 14잔 값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인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통화요금은 1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락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커피 한 잔 값이 1달러이니까 오늘날 1분 통화요금은 커피 10분의 1잔 값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통신비용의 대폭적 감소를 설명해 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비행기 요금이 1960년대에는 320달러였는데 이것은 2008년 지금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비행기 요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때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덜 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싣고 가는 화물 운임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에는 톤당 평균 14.94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7% 감소하여 13.92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출 f.o.b에 대한 세계 수입 c.i.f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 세계무역의 운임 및 보험료율은 1970년에 4.6%에서 2006년에 1.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 무역에서 운송비용이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화되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니 스커트를 입은 외국인은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대학생들의 옷차림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생의 옷차림과 거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대학생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한국의 대학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힙합 노래와 패션과 같은 힙합 문화는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생들의 문화를 수용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많은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 노래와 한국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수출구조는 숙련편향적이며 지식집약적인 구조로 옮겨왔습니다. 전체 제조업 산출량에 대한 숙련집약적 공산품의 비중은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의 8.8%에서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48.9%로 단조롭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초개방경제 국가입니다. 실질 GDP에 대한 실질 수출과 수입의 합계 비율로 측정되는 무역 개방도를 보면, 1970년부터 79년 사이에 23.8%였던 것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84.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통신 운송 비용의 하락과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경제 및 문화 부문에서의 글로벌화를 볼 때, 한국에서 글로벌화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글로벌화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글로벌화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그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적 측면은 그것이 관리감독직을 포함한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시키는 반면 미숙련 및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화에서 나오는 편익과 비용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글로벌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요 도전도 바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극소수의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완전히 글로벌화되든지, 아니면 글로벌화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화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항상 WIN-WIN 형태로 글로벌화의 과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다국적기업과 국가 간의 이해가 상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글로벌화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형태가 아니라, 양자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화되어야 하며, 노동시장과 제품시장에서의 경제적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글로벌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정부재정이나 수출증대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략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에서 고성장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설사 실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자동적으로 불평등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소득 분배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합니다. 또한 고용에 대한 성장의 효과 역시 이미 많은 생산 분야에서 노동집약적 노동자를 대체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장 지지 전략은 환경과 에너지 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략입니다. 인적자원 전략은 생산기술의 변화가 비숙련 및 중간 정도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집단은 비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숙련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방식은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평등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인적자본은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줄이고 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은 인

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도시의 숙련 직종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비교우위와 그들만의 독특한 명성은 기원전 1,2세기에 있었던 유대주의의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에 의해 자극된 광범위한 교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소득 계층이 재원지원을 받아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조금과 저리의 직접대출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글로벌화에 있어서, 제로섬 방식의 접근 내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도와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익의 공유가 보호주의나 글로벌화로 야기되는 손실보다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즉, 훈련 받아 숙련노동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조달해 줘야 합니다. 즉, 이들도 차후에는 글로벌화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글로벌화를 통해 이미 많은 수혜를 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많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혜자가 이득을 보고 있는 시장경제와 글로벌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화의 수혜자가 얻은 이득은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은 그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친척, 친구, 학교,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화의 수혜자들이 얻은 이득의 일부에는 그들을 도와준 사회에도 일정 부분 그 몫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득 중 일부를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사회 환원을 통해서 글로벌화를 통해 불리해진 사람들에게도 경제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한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사회 환원의 방식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 등 과거 미국의 재벌들은 무자비할 정도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쌓은 부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환원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육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시카고, 카네기 멜론, 스텐퍼드 등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바로 이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미국의 유수의 연구기관들 역시 이들이 낸 연구 기부금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부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닌 사회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들이 기부를 통해서 지원한 분야가 인문, 사회 분야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은 교육에 대한 기부 이외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을 국가에 헌납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의 목적 역시 미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 환원의 모습들이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올바른 방식의 사회 환원이란 단순히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떼어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들이 성공하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되어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환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1 교육 개혁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기술 모방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초기 발전 과정과 1964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중기 발전 과정까지는 그 목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읽고 쓸 수 있고, 정력적이며, 규율이 잡힌 많은 노동자들을 창출하는 데는 유용하였지만, 그 수준과 질에 있어서는 다소 빈약했던 거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에서의 교육은, 문제를 다중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숙련도와 함께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적인 숙련까지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견 및 가치

정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문화 내지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들어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자신들의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달성하여,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화라는 견지에서 판단할 때, 교육의 질과 신뢰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에서 운영되는 현재의 경직적 교육시스템이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학생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엄격한 책임성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성을 학교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지식 사회에서 교육에 있어서 평준화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준화를 중시하는 공산국가였던 중국에서도 어떤 지역의 학생이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에 합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인재가 나왔다고 축배를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산 국가에서도 교육에 있어서는 평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은 결코 평준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을 개혁하는 데는 정치적 · 관료적 타성으로 인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언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정들은 불확실성이 창출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나름의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기러기 가족’ 내지 ‘독수리 가족’의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요 근래에는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까지 마치 맹자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학교를 찾으려고 세 번이나 학교를 바꾼 것처럼, 자신들의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자식은 유학 때문에 해외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일년에 몇 번 만나기 위해 날아가는 가정을 일컬어 기러기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돈과 시간이 넉넉하여 일년에도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가족은 독수리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통해서 교육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독수리 가족’, ‘기러기 가족’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펭귄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국에 함께 붙어서 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로, 이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한국에서 학교와 과외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필요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된 나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지체된 교육 개혁으로 인하여 한국이 한국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잃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져 우려됩니다.

4.2 한국의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옮기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노동생애를 통해서 많은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심 이슈는 한국 청년들이 글로벌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엘리트가 되길 원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 등 우리 기성 세대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숙련도를 마스터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청년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의 사명을 찾는 데 짧거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평생 동안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사명대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부심, 행복, 인생의 목적들을 찾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시할 이야기를 통해서 글로벌 세계 속에서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판단과 행동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로버트와 데이비드라는 두 사람에게 봄에 새로 심은 나무에 매일 정오마다 물을 줘야 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로버트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정오만 되면 물을 주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로버트가 그리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정오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물주기를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비가 올 줄 알았던 정오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름 이후 로버트가 키운 나무는 건조한 겨울철을 견디어 낼 만큼 충분히 뿌리를 내렸지만, 데이비드가 키운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겨울 동안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가 현명하다고 착각한 채, 그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즉, 데이비드는 그에게 요청되고 그가 기꺼이 수용했던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는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다른 순간에는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들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지름길이란 없으며, 그리고 항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추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춘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양성되었을 때, 한국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5. 맺음말

마지막으로 전후 시기에 전개된 한국의 역사를 요약하고 한국이 당면한 도전들을 지적하면서 본 강연을 끝맺고자 합니다.

50년 전 한국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열악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1961년 8월에 1억 5,000만 마르크(약 3,0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약속받고 그 보증금으로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서독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8일 튀브게 대통령의 안내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광부들과 젊은 여성 간호사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이 한국 청년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독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청중이 부동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오늘과 내일의 향락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기간 동안에 경제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이 시차를 두고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와 개인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따른 풍부한 물질적 재화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추세로부터 미래를 추정하는 과외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오르막을 항상 더 높은 오르막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와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 자기 수양을 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법에 따르고 정직하고 품위 있고 투명하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한국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정직, 관대함, 지식에 더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색깔의 문화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산과 물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 도전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향락을 희생할 용의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미래의 성공을 보증받고 지구상에서 선진 한국의 빛을 밝히는 길은, 우리들의 개인적 천재성과 정치적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민족성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음(*beautiful mind*), 이것이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하는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단순한 사회에서는 유효한 성격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유효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것입니다. 옛날에 홍콩에 있는 유명한 중식당에 서울에서 온 손님이 한 분 왔다고 합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고급 요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웨이터의 추천을 듣고 난 후에 고급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한국 손님이 “빨리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웨이터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웨이터는 요리사에게 “빨리 빨리” 요리해 달라고 전했고, 요리는 빨리 나와서 손님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서울에 온 뒤에 친구들에게 홍콩에 가서 유명한 식당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왔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홍콩에 가서 고급요리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그 한국 손님이 정말 고급 요리를 먹고 온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늘 최고, 최초 라는 말에 연연하고 이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는 식의 자랑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버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고인 사람들은 그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사람이 최고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시청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는 중국의 실리콘 벨리와 베이징 대학 등을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라톤 코스는 중국의 발전 정도와 중국 최고의 대학들을 전 세계인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고, 최초를 자랑하며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주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성격과 먼 장래를 고려하여 생각하고 일하는 중국인의 성격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성격을 향구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향구심을 수용한다면 보다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국은 세계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교육기관 및 기타 여러 기관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서울에 세운 학교가 연대, 이화여대, 대광고등학교 등이며, 대구에 계성, 신명 등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이런 도움 속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들이 지금 미국 대학이나 국제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국내에 들어와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한국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이룬 경제 기적 이면에는 세계 각처로부터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국민은 세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해 주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힘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감마저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국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제공하는 데 헌신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한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봉사하는 길을 걷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한국 국민 또한 그 과정에서 각자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